

진안의 변화, 군민의 삶에서 시작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말로 하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인간미가 넘치는 인물이다.

진안에서 나고 자라 진안초·진안중·진안 종합고를 거쳐 전북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졸업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타 공인 진안 전문가'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시절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져온 현장 감각은 이제 군의회 의장이라는 책임감과 만나 진안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겨울의 컵차를 스치는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도 녹일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군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동 의장을 만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진안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의장님은 '진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십니다. 의장님께 진안은 어떤 공간인가요?

A: 저에게 진안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제가 태어나 자라고 흙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공직을 마감한 곳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이 땅에 새겨져 있으며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알리도록 정치 여정에 인도된 고향입니다.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이웃이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히로아라를 느끼며 사람 냄새나게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제 아픔으로 다가왔고 기쁨이 있을 때는 제 삶의 보람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Q.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전주에서 오페라 카르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문화 동행을 자주 하시나요?

A: 사실 진안에서 오페라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규모 영화관은 있지만 대형 무대 공연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죠.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삼성문화회관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이들과 구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진안의 구성원들이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이런 고품격 문화 경험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인 봉사와 협력의 틀 안에서 이런 기회가 자주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록 되었으면 합니다.

Q. 의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셨습니다. 당시의 경험이 의정 활동에 어떤 밑거름이 되었나요?

A: 저는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웃음). 상담소장 시절,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마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를 직접 찾아다니며 면대면(Face-to-Face) 활동을 했죠. 진안의 11개 읍면 중 7개 면(진안읍, 부귀, 정천, 용담, 안천, 백운, 성수면)을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집 순가력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신뢰도가 쌓이면서 인지도가 높

아졌습니다. 퇴직 후 의정활동시에도 저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 '현장의 진정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맺은 주민들과의 인연 현장에서 배운 농업의 실상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휴먼지 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Q. 공직 퇴직 후 평범한 삶을 꿈꾸셨을 법도 한데 정계 입문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원래는 퇴직 후에 전국을 돌며 농민들에게 신기술 농업 관련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부터 제주도까지 다니며 지역 특성을 알아보고 강의료를 받으면 그 지역 사람들과 카페 미팅도 하며 책을 쓸 계획이었죠. 실제로 SBS TV 특강이나 MBC 임성훈과 함께 토크쇼에도 출연하며 강사로서의 길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다. "지역 농업 전문가가 정작 고향 일은 외면하느냐"는 질책이었죠. 결국 제 인적 네트워크와 현장 지식이 진안 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Q. 진안군의회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A: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동료 의원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뛰어준 결과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맑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선제적 의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 정적이 지역에 내려올 때 생기는 과리를 미리 파악해 개선을 요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2등급이라는 성적표는 군민들께서 "진안군의회는 믿을 수 있다"라고 보내주신 최고의 훈장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자존감을 지켜나겠습니다.

Q. 의원 재임 4년 동안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 차례와 '전북 의정 봉사 대상'을 2차례나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저는 2022년 선거기간 "군민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임했고, 의원으로 당선되던 날, 저는 오직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 과정이 좋게 평가돼 세 차례나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겸연쩍은 마음도 있습니다.

“진안, 태어나 자라고 공직을 마감한 곳 기쁨 있을 때, 내 삶의 보람으로 이어져

농업 전문가로 현장 지식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정치에 입문 남은 시간도 초심 잃지않는 자세로 최선

저탄소 농업, 선택 아닌 필수로 생존과 직결 최근 대두된 치유농업, 100세 시대에 맞아

오늘보다 내일, 군민의 삶 윤택해져야

의원으로서는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중한 격려를 받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을 '잘했다'는 평가라기보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군민의 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 찾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진안은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는 초초고령 사회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A: 맞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안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살아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지가 머무는 지역을 만들어서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마이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열대야 없는 진안을 전자휴면이 가능한 스포츠 타운으로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에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여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농업 구조를 빨리 구축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켜 소멸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Q.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산림 인접 가구의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소화전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고 "화재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를 당한 군민에게 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이 잦아지는데, 진안의 귀농·귀촌 가구는 경치가 좋은 산 밑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접지에 소화전 호스를 설치해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고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가 화재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도 사무(소방)과 겹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예외는 없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Q. 전군민 원예학을 살려 저탄소 농업과 치유 농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탄소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존과 직결된 분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국경 탄소세 도입 등 수출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탄소 저감 인증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행히 진안은 임야가 70%여서 거대한 탄소 흡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을 더 높이려면 수종 갱신을 통해 탄소 흡수 능력을 키우고 이를 탄소 크레딧 제도와 연계시켜 농가수익을 보전하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최근 대두된 트렌드로 100세 시대에 맞는 농업입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100세 인생을 강의할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품격 있게 늙어갈 것인가와 연계한 저탄소 치유농업 강의를 할 때가 의장으로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Q. 진안의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A: 마이산은 세계적인 명산이지만, 현재는

탐사만 보고 밥 한 그릇 먹고 떠나는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에 살아 있는 역사적 뿌리를 입혀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 건국 당시 태조 이성계 장군이 꿈에서 금척을 받은 '몽금척' 설화는 진안만이 가진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또한 4대 임금(세종 문종 단종 세조)을 모신 최고의 '어의 전승의 선생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안의 선생님은 식지 음식으로 병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식료천요'라는 책을 쓰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선진이 진안 출신이라는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안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성계의 '왕의 꿈'이 서린 곳, 의의 전승의 선생님이 주창하신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케어 음식 분고장이나 기(氣)가 살아 숨 쉬는 마이산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국 내외에 널리 심어줘야 합니다. 명칭 또한 북부·남부 마이산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마이산 남부와 마이산 북부로 사용해야 합니다.

Q. 시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명품 거리 조성' 제안도 인상적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려면 감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냥 가루수를 심는 것이 아니라, 3월에 피는 꽃, 4월의 꽃, 5월의 꽃 등을 월별로 거리별로 계획성 있게 심어야 합니다. 드라이브하다라도 '이 거리는 지금 꽃이 피었겠구나' 하는 느낌(Feel)이 와야 합니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처럼 진안만의 시그니처(상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에도 빨간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심는 등 수종을 개발해 시계절 내내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생활 인구가 늘어납니다.

Q.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통해 '오늘도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에 담긴 철학은 무엇이었나요?

A: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공직 생활 동안 노트에 진안 발전을 위한 저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메모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제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수든 의장이든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오직 진안 발전을 생각해 왔기에 책 제목을 '오늘도 생각한다'로 정한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진안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들이 이어가는 세월 속에서 "사람 냄새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삶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맛이 없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진안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으로서, 제 고향에 배를 묶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정활동도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손톱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의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작은 목소리도 진안의 미래를 바꾸는 큰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인터뷰 후기

동창옥 의장과의 대화는 정치인의 인터뷰라기보다 농사 현장에서 만난 베테랑 농사꾼과의 담론 같았다. 그는 수사료 표현되는 엄격보다 "마을 소회한 덕분에 집을 지었다"는 할머니의 한마디에 더 큰 가치를 본다.

'오늘도 생각한다'는 그의 책 제목처럼,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2만 4천여 명의 진안 군민의 삶이 촘촘하게 설계되고 있었다.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되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동 의장의 고향 진안을 향한 깊은 애정과 헌신적 사랑이었다.

진안이 가진 농업과 역사, 자연의 가치를 깨어 명품 진주 진안을 만들려는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오늘도 생각한다"는 그의 다짐이 진안의 흙을 일깨우고, 군민의 삶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진안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만호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동창옥 의장은?

- 진안초·중·고 졸업
- 전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 저마다 후반기 진안군의회 의장